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도중 송광호 최고위원의 뉴타운 대책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왼쪽〉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참사 검찰수사가 편향적으로 진행된다면 특검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경제로 국면 전환" "용산참사 특검을"

여야 2월 국회 주도권 잡기 쟁탈전

입법전쟁 등 쟁점 산적…격돌 불가피

설 연휴를 보낸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를 목전에 두고 주도권 쟁탈전에 돌입했다.

2월 임시국회는 입법 전쟁 뿐 아니라 용산 참사와 인사청문회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치열한 전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설 연휴를 거치면서 용산 사고에 대한 민심의 기류가 당초 우려했던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국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선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경제살리기 중요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살리기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로 만들겠다는 야당의 전략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 등 역풍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정국전환을 모색하게 된 이유는 용산사고에 대한 민심이 당초 우려했던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자체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민심의 바다에 빠져봤는데 민심은 역시 경제 뿐이었다. 경제 속에 모든 단어는 다 묻혀 버리고 경제를 살리는 노력이 왜 부족하느냐는 질타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국인식을 반영하듯 한나라당 내에선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 임명 주장을 통해 용산정국 연장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대해선 강경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하면서 용산사고에 대한 특검 요구 등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석기 내정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는다면 증거를 은폐·조작·축소·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특검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서울청장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만큼 경질을 안하고는 안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계속 비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를 책임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은 (청와대가) 원 장관에게 불이 안 번지도록 방패막이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법안 심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청문회를 먼저 끝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가 빨라야 다음달 11일에 끝나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심사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아울러 '용산 참사'가 공권력과 국민 간 저항에서 비롯됐다며 '용산 참사'에 대한 민심을 바탕으로 이른바 'MB악법'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인사청문회' 충돌하나

민주, 원세훈 청문회 '보이콧' 저울질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등 '1·19 개각'의 후속 절차로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용산사고 등으로 인선이 지연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서까지 제출되면 국회는 장관 3명, 사정기관장 3명,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 각 1명 등 총 8명을 검증해야 한다.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전화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를 비롯해 인사청문을 담당할 각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15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정보위(국정원장), 기획재정위(재정부장관), 외교통상통일위(통일부장관), 행정안전위(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특위(대법관)는 내달 6일까지 청문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 내달 5일 또는 6일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인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용산 사고'의 지휘 책임을 들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함께 원 내정자에 대한 파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 일단 표면적으로는 인사청문회 거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파면을 요구하며 국정원장직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마당에 인사청문회에 응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논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李 대통령-박근혜 무슨 얘기 나눌까

박 전 대표 靑 오찬 참석 결정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다음달 2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키로 했다.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유정복 의원은 28일 "박 전 대표가 오늘 오전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늘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환영 만찬 이후 7~8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때는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다. 때문에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복당 문제와 개각 논의가 정치 쟁점화됐던 지난해 5월10일 단독 회동을 한 뒤 사실상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특히 오찬 날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표의 57번째 생일이다. 때문에 청와대는 축하 케이크를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생일상을 받는 셈이 됐다며 이날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승용 의원 의정보고회

민주당 주승용(여수을·사진 가운데) 국회의원은 28일 여수시 학동 목화웨딩홀 2층 대강당에서 '2009 신년 하례 및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주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여수는 여수엑스포 개최와 대규모 SOC 확충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희망이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여수 엑스포 개최에 따른 SOC 확충과 여수 묘도~광양 현수교 건설, 여수~순천 철도 복선화 사업 등 대규모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곤(여수갑) 의원, 오현섭 여수시장, 신순범 전 의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도 함께 열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합격은 김영에서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편입관련 문자상담 010-7766-1254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227-8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 2010학년도 편입대비
- 기초부터 알기쉽게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문법, 독해, 어휘 MT(조별토론학습)
대학편입 대개강 : 2월 2일

www.dkc.ac.kr
동강대학 DONGKANG COLLEGE UNIVERSITY
신입생모집
국가인정 취업 최우수대학
광주, 전남/북 지역 전문대학 중
취업1등대학 선정
합격증
입학상담
520-2552~5
당신의 꿈과 미래를 함께 하는 동강대학!
글로벌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2009년 제2기)
• 개강일시 : 월요일 오전반 2009. 3. 9(월) 9:10
오후반 2009. 3. 9(월)13:4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09. 1. 29(목)~2009. 3. 9(월)
• 수업기간 : 2009. 3. 9(월)~2009. 8. 17(월)(6개월/24주)
• 수 강 료 : ₩300,000
모집안원 : 1단계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25명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반 9:10~13:00
오후반:13:40~17:30
수료후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화 (062)530-3873~5 • H·P 016-611-1171
• 광주은행:074-107-004114(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가은공인중개사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TEL: 062-371-4449
H·P: 010-8289-8549
진월지구 최고상권
(씨티 메디컬)
• 병/의원 임대 및 분양
• 6,000세대가 공존하는 최고상권
• 내과/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등
• 농협, 뚜레쥬르, 패밀리마트 등 성업중
첨단2단계 생활대책용지
(일반상업지역)
• 지구내 상업지역중 최고위치
• 금융기관/병원/학원등 1순위 선호지역
• 1650㎡ (500평)
• 가격 상담 후 결정

산행안내
12면게재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분묘기수

소 재 지	지목	분묘기수	비고
①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123-1, 산123-11 번지	임야	3기	
②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산149번지	임야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공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광양영세공원)
6. 연락처
• 성 명 :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607번지
• 전화번호 : ☎ 061)772-0875, 011-629-0875
7. 공고후 조치 : 공고기간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1월 29일
공고인 : 박혜숙, 김양자, 오종민

판결공시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고단8
광주지방법원 2008노1939
사건명 : 사기
피고인 : 윤경호
위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09년 1월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정 도 성